

책, 무생물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나를 변화시킨 상담가이자  
성장시켜준 멘토.

어릴 적 독서습관을 길러줄 부모님은 생계를 위한 맞벌이에 바쁘셨고,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언니 오빠와도 나이차이가 10살 이상이어서 같은 취미나 문화를  
공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릴 땐 학교에서 하는 최소한의 독서로 책을 접하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다들 바 없이 책에 대한 욕망만 간직한 채 10대를 보냈다.

줄 곧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막연히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독  
서를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독서를 성인이 되어 취미로 삼  
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렇게 20대가 되어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터  
라 20살의 대학생살은 나에게 너무 벅찼고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점점 피폐  
해 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어 하루하루를 헤매었던  
것 같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되니 사회에서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져만 가고,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  
을 때 우연히 인터넷으로 접한 독서모임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임에서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했는데, 그 중 습관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 변화에 목말라있던 나는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8주 동안 생활습관을 바로 잡고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하루에 한권씩 책을 읽는 사람들부터, 아침을 활용해 독서를 하거나 틈틈이  
이동시간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책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읽지 않  
았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모임을 통해 책을 꾸준히 읽어나갈 수 있었다.

물론 책을 읽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초반의 의욕과는 달리 다시 책에 소원해지  
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며 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당시 독서모임을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리상 매주 서울에 모임을 나가기에 벅  
찬 느낌이 있어 인천에 있는 사람들끼리 독서모임을 따로 만들어 매주 모이고 있  
다.

책을 읽기 전에는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면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 하는 바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현재 운영하는 독서모임도 초반에는 단순히 같은 책을 읽고 느낌을 나누는 것에 그쳤었지만, 독서 후기를 쓰고, 논제를 정해 책의 흐름을 따라가며 토론하다 보니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통해 책을 읽는 행위의 독서에서 벗어나 사유하는 독서로 옮겨가는 중이다.

책을 통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느끼고 있다. 예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사는 것이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나가면서 막연하고 흐렸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사유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독서모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 또한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추상적인 생각들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생기는 변화가 가장 만족스럽다.

20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니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로 인해 학업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 시간여유가 없다는 이유들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또 다시 늘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실천하는 힘을 얻었고, 또 책을 함께 읽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아 30대 중반이 되어 다시 학교로 올 수 있었다.

현재 나는 34살에 대학교 1학년생이다. 무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굳이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다시 돌아온 학교는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도서관에 오면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책을 읽다 무심코 바라본 창밖의 새파란 하늘은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다.

요즘 나는 지인들에게 독서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평화적인 취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넓은 공간과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 누군가에게 방해도 주지 않는 지극히 평화로운 행위.

책 속의 다양한 저자들, 인물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독서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하다.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있던 나를 응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을 독서를 통해 얻었다.

나를 변화시킨 가장 큰 존재, 나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는 선생님,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친구,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멘토, 이 모든 것을 독서를 통해 얻고 있다.

최근 들어 내 생각을 지배하는 명제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이상의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독서를 통한 간접체험을 통해 우리의 사유를 확장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힘든 사회 환경이지만, 이럴수록 스스로의 가치를 정립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이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립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설 수 있을까?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책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있지만, 독서는 과해도 좋지 않을까?

송지영